

제19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

세대, 공동체 그리고 박물관교육

Generations, Community, and Museum Education

- 일시 : 2025.5.17(토) 10:00 - 12:00
- 장소 : 소강당(국립중앙박물관 교육동 1층)
- 주최 : 한국박물관협회,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
한국문화교육학회
- 주관 : 한국문화교육학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가현문화재단, 시공테크

한국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세대, 공동체 그리고 박물관교육”

일 시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10:00~12:00

장 소 소강당(국립중앙박물관 교육동 1층)

사회 : 황 지 영(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 제 1 발표

10:00 - 10:30

세대공존과 박물관교육 : 공공성과 문화적 취향공동체 사이

이 병 준(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위 미 나(원혜대학교 교육학부 박사과정수료)

▣ 제 2 발표

10:30 - 11:00

경북대학교 미술관 세대통합과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례

이 남 미(경북대학교미술관 학예연구사)

▣ 제 3 발표

11:00 - 11:30

경계를 넘어 세대와 세계를 잇는 문화교육공동체_
ACC 국제교육협력의 실천과 확정

조 성 희(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과 학예연구사)

11:30 - 12:00

[토론 1]

권 정 숙(청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토론 2]

조 혜 진(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 학예연구사)

[토론 3]

김 자 현(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미래전략사업실장)

목 차

▣ 제 1 발표

- 세대공존과 박물관교육 : 공공성과 문화적 취향공동체 사이
이 병 준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
위 미 나 (원혜대학교 교육학부 박사과정수료) 1

▣ 제 2 발표

- 경북대학교 미술관 세대통합과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례
이 남 미 (경북대학교미술관 학예연구사) 21

▣ 제 3 발표

- 경계를 넘어 세대와 세계를 잇는 문화교육공동체_ ACC 국제교육협력의 실천과 확장
조 성 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과 학예연구사) 39

▣ 토 론

- [토론 1] 권 정 숙 (청운대학교 교수) 59
- [토론 2] 조 혜 진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 학예연구사) 63
- [토론 3] 김 자 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미래전략사업실장) 64

제 1 발 표

세대공존과 박물관교육 :
공공성과 문화적 취향공동체 사이

이 병 준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위 미 나
(원헌대학교 교육학부 박사과정수료)

세대공존과 박물관교육 : 공공성과 문화적 취향공동체 사이

이병준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¹⁾
위미나 (독일 뮌헨대학교 교육학부 박사과정 수료)

I. 프롤로그

- 문화적 지속가능성, 세대공존 & 사회통합

교육과 문화가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은 해당 기관과 기관종사자가 숙지해야 할 가장 큰 사회적 사명과 임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통합의 과제(agenda)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과 준비는 사실상 미흡하다. 오히려 기관종사자들은 기관의 설립목적 중 자신의 전문성과 연결된 일부만 자신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물관의 조직구조 또한 몇 개의 전문직종이 결합된 매우 특별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행정전문성을 지닌 인력과 고고학, 역사학, 인류학, 미술사학 및 박물관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전문성을 지닌 인력들이 종사하고 있다. 박물관의 분위기 또한 바깥세계와 분리되는 듯한 느낌을 연출하는데 이러한 박물관은 공간과 분위기의 연출 때문에 도시(지역)속에서 섬(island)과 같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심신의 휴식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는 ‘세대갈등’이 해소되기 쉽지 않은 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해왔다. 이 세대갈등은 가정, 학교, 일터 전 영역에서 관찰될 수 있으며 세대 간의 경계와 분리가 진행되고 있다. 사실상 문화와 교육이야말로 문화적 기억의 세대 간의 전승이라는 핵심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세대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과 활동은 여전히 미미하다. 더구나 최근 우리나라의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기관들이 ESG경영을 외치면서도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가치의 핵심인 ‘세대공존’(Brundtland report, 1987)의 문제를 그들의 핵심활동에서 최우선가치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들 기관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1) yibyungjun@pusan.ac.kr 현 한국문화교육학회 회장

세대공존의 문제를 ‘세대별 나열’이라는 레퍼토리 구성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너무 근시안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대공존이라고 하는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핵심가치와 관련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박물관들은 어떠한 일들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지속적으로 학문의 영역에서 던져야 할 화두이다. 문화적 지속가능성과 ESG를 기관경영평가의 관점에서 indicator의 관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박물관이 전시와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감하는 측면에서 ‘세대공존’이라는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II. 인간교육의 공간으로서의 박물관교육

- 오브제를 통한 개인과 세계간의 연결과 상호작용의 촉진 -

1. 인간교육의 장으로서의 박물관교육

J.J. Rousseau는 「에밀」과 「사회계약론」에서 각각 인간 개인적 존재로의 교육과 사회적 존재로의 교육을 강조하고 근대 부르조아 시민의 야누스적 두 얼굴의 양면성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가 느끼기보다는 훨씬 더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인간 개인의 자기발견의 교육인 인간교육은 중요하다.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속에서 끊임없이 재해석해가는 과정은 교양교육의 핵심이다. 교양교육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어떻게 관계 맺고 방향성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적 지식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통찰(insight)을 제공하는 인문성을 기르는 작업은 중요하다.

인간은 인간의 삶과 학습에 있어서 스스로의 사고와 행위를 통해 자기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상(對象)과 소재(素材)를 필요로 한다. 인간과 세계를 연결해주는 대상과 재료는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도와주는 재료(材料)의 역할을 한다. 인간성장의 계기는 이러한 대상과 소재, 재료와의 우연적 만남을 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각종 활동의 중심에는 모든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가지 의도만을 위해 자신의 본성의 힘을 강화하고, 그 본성에 가치와 영속성을 부여하기를 원하는 인간이 위치한다. 그러나 단순한 힘은 그것이 행사될 대상을 필요로 하고, 단순한 형식과 순수한 사고는 그 속에서 자신들이 뚜렷이 나타나며 지속될 수 있는 재료를 필요로 한다. 바로 그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외부에 있는 세계를 필요로 하고, 자신의 인식과 영향력의 범위를 넓히려는 인간의 노력

이 생겨난다. 그리고 스스로도 명확히 의식하지 못한 채, 인간에게는 사실상 어떤 것을 얻거나 자신을 넘어 산출하는 것의 중요성보다 단지 자신의 내면적 개선이나 개량, 혹은 자신을 쇠약하게 하는 내적 불안을 진정시키는 것만이 중요해진다. 순수하게 그리고 그 최종 목적에서만 본다면, 인간의 사고는 항상 스스로를 이해시키려는 정신의 시도이며, 인간의 행동은 그 자체로 자유롭고 독자적이 되려는 의지의 시도이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외적 활동은 단지 자신 속에서 헛되게 머물지 않으려는 노력과 다름없다. 그의 사고와 행위 양자가 제삼의 것을 통해서만, 즉 비인간, 다시 말해 세계라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실제적으로 구분되는 표상의 가공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은 가능한 한 더 많이 세계를 움켜쥐고 더 긴밀하게 세계를 자신과 연결시키려 애쓴다.” (Von Humboldt, 2019: 18-19)

박물관은 역사와 기억 그리고 다양한 물질성의 연출을 통해서 형식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아우라(aura)를 재현해준다. 이러한 역사적, 예술적 재현과 교육적 재현은 상호침투되면서 인간세계의 축약된 지혜(wisdom)을 보여준다.

2. 인류세(anthropocene) 교육의 장으로서의 박물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인간의 지구적 조건의 위기가 도래되면서 인류세(anthropocene)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사실 그간 한국의 교육담론에서는 개체적 차원에서의 인간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관심을 많이 언급되었으나 종(種)으로서의 교육을 통한 인류의 발달과 성장에 대한 언급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논의와 연결되는 훔볼트(W. von Humboldt)의 인간교육에 대한 사상적 기초는 인간 개체 뿐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인류의 발전과 성장을 지향한다. 우리나라의 학교교육과 교육학담론에서 인간개체에 대한 논의는 활성화되어 있으나 인류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제한적이기에 박물관교육은 인류(人類)라는 개념을 교육에 접목하고 있을 거의 유일한 영역인 듯하다.

“우리 현 존재의 마지막 과제는 ‘인류’의 개념에 우리가 살아 있는 시간 동안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도 남을 수 있는 최대한 위대한 내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우리의 자아를 세계와 결합시킬 때에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약동적이며 가장 자유로워질 상호작용을 통해서 해결된다. 오직 이 상호작용만이 이제 인간 인식의 모든 분야의 작업에 대한 판단의 실제적인 척도가 된다. 그러한 척도에 의거해 인간의 시선이 이 마지막 목표에까지 이르는 확고한 전진을 목도할 수 있는 길만이 누구나에게 올바른 길이며, 오직 이 길에서만 통상, 영원히 죽어 있고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것을 소생시키고 결실 맺게 하는 비밀을 찾을 수 있다.” (Von Humboldt, 2019: 19)

Ⅲ. 문화교육의 공간으로서의 박물관

- 문화적 기억의 저장소와 다양한 시민 취향의 설계 -

1. 문화교육의 장으로서의 박물관 : 고전적 근대의 접근

박물관은 사회의 어떠한 부분들을 기억하고 저장하며 소통할 것인가와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문화적 기억의 공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물관은 도서관과도 매우 흡사하다. 물론 도서관은 책과 이미지 자료의 아카이빙에 주력한다면 박물관은 다양한 오브제들을 컬렉션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저장할 것인가는 지속적인 담론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박물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박물관이 어떠한 기억을 저장하고 보존하며 전시와 교육을 통해 소통할 것인가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미션이다.

박물관은 장소(site)에 기반한 문화적 기억의 저장소와는 다르다.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였던 “장소는 집단의 기억에 각인된 것” (Assmann, 2009/2011: 420) 인데 비해, 박물관은 동일한 공간에서 다양한 공간연출 속에서 서로 다른 오브제들이 전시를 통해 선을 보인다. 박물관은 공간의 연출과 전시내러티브의 새로운 구성을 통해 던지고 싶은 아젠더를 전시라는 공연의 장에 올린다. 때문에 박물관에서는 전시는 재현과 함께 임시적으로 조성된 공간의 아우라를 생산해낸다.

2. 다양한 문화적·미적 취향의 전유공간으로서의 박물관 : 후기 근대의 접근

박물관이 문화적 기억의 보존과 공유라는 문화교육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자기이해는 변화와 도전을 맞고 있는지 오래되었다. 이제 박물관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미적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신을 요구받게 된다. 이제 박물관은 시민들의 취향의 스펙트럼을 커버해주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는 다양한 문화적 취향 또는 미적 취향의 설계를 도와주고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는 Reckwitz가 언급한 트렌드 전략을 박물관이 수용하는 형태이다.

A. Reckwitz는 문화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세 가지의 전략적 접근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Reckwitz, 2023: 276). A. Reckwitz의 분석을 박물관 및 박물관교육 정책과 연관시켜보자면 지역의 시민(대중)과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세 가지 서로 다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우선 대중을 따르는 트렌드 전략은 관람객의 특수한 소망과 생각을 받아들여 대중적이고 고객친화적인 재화를 만든다. 둘째 수용자보다 앞서가는 아방가르드 전략은 박물관/박물관교육 전문가(문화적 재화 생산자)가 당당하게 자기나름의 비전과 현실해석에 초점을 두면서 처음에는 회의적으로도 반응할 수 있을 대중을 자극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이 전략을 취할 경우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고 엄청난 대박 성공이 생겨날 수도 있다.) 셋째로 수용자와 협력하는 콜라보레이션 전략은 창작자와 고객이 함께 고객의 수용에 맞게 재단된 재화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수용자가 공동창작자가 된다).

Ⅲ. 시민교육의 장으로서의 박물관

- 박물관과 공론장 & 사물기반의 교육방법 -

1. 공론장으로서의 박물관

기본적으로 박물관은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이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과는 달리 박물관은 공론장(Öffentlichkeit)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공론장이라는 개념은 개인적인 축이나 국가가 제공해주는 규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언어적으로 구성해내는 사회적 공간” (Habermas, 1994: 435)으로 이해되어진다. 공적 공간으로서의 박물관은 던져진 사회적 주제, 즉 아젠더에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개진”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모더레이터(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이병준, 2006: 49). 공론장은 최근 시민사회(civil society) 논의와 관련하여 계몽과 민주주의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론장은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등장하게 되는데 살롱(salon)이나 카페(cafe), 독서회(Lesegesellschaft)등은 초기 공론장의 제도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이병준, 2006: 49-50). 현대사회에서도 다양한 공론장이 존재하나 박물관은 공간구조로 공론장의 문화를 생성해 내기에 탁월한 조건을 갖추었다. 박물관을 하나의 사회적 공론장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계몽의 조직”(Möller, 1986: 212)이라는 교육학적 문제의식과 관련성을 가진다.

박물관을 시민교육의 장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소위 박물관 내부자와 박물관인들 또한 교양교육, 문화교육 그리고 예술교육의 차원에서의 박물관교육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시민교육은 기껏해야 문화다양성 논의 정도에 불과해 보인다. 비엔날레와 같은 현대미술전의 경우 공공박물관보다 더 비판적 담론의 생성과 공유 및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적 컨셉이 확산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박물관이 사회적 아젠더들의 공론장이어야 한다면 박물관의 시민교육적 기능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박물관에서의 시민교육은 시민교육이 전면에 나서고 박물관교육은 시민교육의 방법적 접근으로 구성된다. 즉, 주제와 내용은 시민교육적 논의에 초점을 두고 방법은 박물관교육적 접근으로 이루어진다.

2. 시민(성)교육에의 박물관교육방법적 접근

시민교육에서의 박물관교육방법적 접근이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사물기반의 학습, 오브제 기반의 학습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전시기반의 교수학을 의미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시민교육은 강사교수자가 이끌고 나가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 전달이라는 강의식 방법과 모더레이터 및 퍼실리테이터가 리드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식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물과 오브제를 중심으로 하는 박물관교육은 ‘전시교수법 (Ausstellungsdidactic)’이라는 방법으로 지각과 관찰과 이해와 토론에 기반하여 미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이다.

시민교육이 문자텍스트 중심의 내용전달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와 문화적 방식, 그리고 예술적 텍스트를 박물관에서와 같이 활용하는 방식은 중요하며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문자텍스트에 기반한 내용전달이 의미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민교육에 새로운 교육방법, 즉 문화교육적, 예술교육적 방법들이 결합되고 활용되고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민교육과 문화예술교육간의 공동project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일수도 있고 시민교육 실천가들이 문화예술교육방법을 위한 연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는 ‘시민교육에 있어서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을 의미하며 시민교육을 실행하는 실천가들이 “문화적 역량” (이병준, 2010: 384) 또한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기반한 시민교육 또는 시민성학습만이 아니라, “인간-사물 연결망” (Latour 외, 2010)에 기반한 시민교육 또는 시민성학습에 초점을 둘 필

요가 있다. 연극인류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인식의 전환은 “전이경험”, “역치성 경험” 또는 “문지방 경험”을 통해 생성된다(Fischer-Lichte, 2017/2004). 연극학자이자 연행성이론가인 에리카 피셔-리히테(E. Fischer-Lichte)가 주장하는 “물질성의 연행적 연출”(Fischer-Lichte, 2017/2004: 165-304)은 박물관교육방법의 적용에서 잘 드러날 수 있다. 박물관의 전시는 예술에서의 공연과는 다르지만 관람객이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전시라는 상연의 장’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공간성, 소리성, 시간성, 신체성 등이 작동하는 물질성의 세계를 연행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다.

이는 교육을 좁은 의미의 교수(instruction)-학습(learning)이라는 좁은 의미의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퍼포먼스적 사건(performative event)에 기반한 교육과 학습이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박물관의 현실은 전시와 교육을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구획화하고 코드화하고 있다. 박물관에서의 전시와 교육을 경계지움으로써 박물관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적용되고 있는 교수-학습이론모형을 따르고 있다. 박물관교육의 specialty는 사물과 오브제와 전시 기반 교수법의 적용에 있다. 때문에 북미에서는 ‘Educuration’이라는, 독일어권에서는 ‘Ausstellungdidaktik’이라는 컨셉이 존재하면서 전시와 학습, 전시와 교육을 매우 밀접하게 기획, 조직,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방법에 기반한 교수학습이 아니라 - 연출된 연행적 사건이라는 임시적 ‘전시학습공동체’의 세팅이라는 문화적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IV.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 박물관과 박물관교육

- 몇 가지 스케치 -

1. 박물관 경영목표로서의 문화적 지속가능성'

- ‘세대공존’의 아젠더를 박물관 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기

Brundtland report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의 핵심화두는 ‘세대공존’이다.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문화를 기반으로, 문화를 매개로, 문화를 중심으로 우리사회는 세대가 공존하는 사회를 표방하는 것이다. 굳이 ESG 경영이 아니더라도 ICOM도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박물관’이라는 미션을 설정하고 있듯이 지속가능성을 향한 박물관 정책의 방향설정은 중요하다. 문제는 지속가능성을 ESG라는 경영평가적 차원에서 접근

해야하기도 하지만 박물관의 핵심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은 세대공존이라는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전시와 교육이 하나의 활동체계로 묶인다고 볼 때 박물관의 전시교육 정책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목표는 사회문화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는 ICOM에서 제시한 지속가능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여러 세대가 함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박물관 공간정책의 기획 - ‘공간학습’의 장으로서의 박물관(교육)

박물관의 공간은 물질성의 연출과 그로 인해 생성되는 분위기로 사물이 던져주는 메시지를 전유하는 대단히 특별한 장소성을 지니고있다. 문제는 박물관에 여러 세대의 관람객 및 방문객들이 자리했을 경우 그들이 각각 ‘세대친화적 공간’임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공공박물관의 공간은 전 시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기에 공공박물관의 공간정책이 특정 연령층만을 겨냥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개별 세대가 친화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독립공간도 필요하지만 세대가 함께 편안함으로 느끼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촉발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공간 또한 필요하다. 박물관에서는 공간을 통해, 공간 속에서 전유하고 학습한다. 공간이 주는 분위기 또한 편안함과 쾌적함을 함께 제공하는 분위기속에서의 미적 학습이 가능해진다.

3. 박물관 전시·교육의 목적으로서의 ‘지속가능성’

- 세대공존의 가치를 시민들이 전유할 수 있는 전시·교육 기획

박물관의 전시와 교육은 박물관내 담당 전문가들의 해석적 실천의 결과물이다. 대체로 박물관 내부전문가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아젠더들이 전시와 교육에 채택이 된다. 이들이 재현적으로 구현해내는 전시와 교육이 얼마나 현실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박물관을 방문해 본 사람들이 대체로 느끼는 것은 박물관 외부와의 협력적 프로젝트가 아젠더 설정단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제한된 시간동안 하나의 복잡한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동으로 작업하는 체계로 규정할 수 있다(Reckwitz, 2023: 281). 이는 박물관에서의 전시교육은 박물관외부의 박물관인들과의 협업이 아니라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과의 학제적 협업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젝트는 창발성을 위한 상상블과 같은 네트워크행위이기에 박물관은 지금보다는 훨씬더 외부세계와의 협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Reckwitz, 2023: 281). 이는 박물관의

조직문화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박물관에서의 창조노동을 위한 융합화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4. 서로 다른 여러 세대가 함께 전시교육 기획하는 프로젝트

- 사물과 물질성으로 세대가 교류하기

재현적 보여주기인 전시행위는 그 세대의 특성이 드러난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전시가 젊은 세대들에 의해 새롭게 선보이면서 박물관 바깥의 전시문화도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물관이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기반의 온라인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어떠한 사물과 물질성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재현방식으로 전시와 소통을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대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박물관의 활동체계에서는 이러한 물질성과 매체성의 다양한 공존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개별 세대는 특정한 물질성과 매체성에 의존하거나 선호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연출해내는 앙상블 또한 창발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대감수성’ 박물관 내부 전문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젠더감수성과 같은 맥락).

5. 세대공동의 주제의 기획

- 교양교육, 문화교육, 시민교육의 융합체로서의 박물관교육

세대 간에는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도 말할수 있지만 같은 시대,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함께 느끼고 공유하는 주제와 이슈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가속화의 시대에 있어서 인간외부 세계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짐에 따라 ‘감속화’를 지향하는 문화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박물관은 감속화를 도와줄 수 있는 공간이다. 박물관은 자신을 존재적으로 찾아가는 의미의 교양교육과 인류적 관점에서의 문화적 세대 경험의 전승이라는 문화교육, 그리고 박물관에서의 전시와 교육은 공론장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시민교육적 차원 모두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박물관의 전문인력 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통합적 사고와 관점을 지닌 박물관전문가를 만나기는 어려운데 이는 채용공고시 특정 전공으로 제한하는 것의 문제, 즉 기능적 업무수행능력만을 보는 채용문화 때문이다. 해석적 역량이 중요한 상황에서 보다 폭넓은 인문과학, 문화과학, 사회과학적 소양이 요구된다. 방법론만을 가진 전문가들이 판치는 박물관은 한계에 봉착한 듯 하다.

V. 에필로그

1. 해외로 시야를 넓혀보면 공공박물관이 아닌 데에도 공공성을 띤 시대 아젠더를 박물관의 활동에서 소통하려는 ‘해석적 학습공동체’를 가동시키는 곳들도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물관 전문가 아젠더를 발굴해내서 해석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소통시키려는 역할에 대한 자기이해가 뚜렷하다. 이를 위해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이론가 및 실천가)과의 협업이 뚜렷하다. 이들은 아젠더를 중심으로 함께 협업하는 것이다. 소위 선진국에서의, 국내에서도 일부 관찰되는, 이러한 아젠더 중심의 협업은 박물관인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자화자찬이고 내부비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대정신(Zeitgeist)’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박물관의 가장 기초적 사명중 하나인 ‘문화적 기억의 저장소’에 대한 미래적 논의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물관의 조직학습과 조직문화에 대한 시급한 혁신이 요구된다.
2. 최근에 한 공공박물관의 관장 출신인 분과의 대화 속에 ‘박물관전문가들의 카르텔’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면서 해외에서 박물관 및 박물관교육을 전공한 자들이 그들 스스로의 리그를 만들어 폐쇄적인 내부카르텔을 보이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는 미국출신 또는 영국출신의 ‘박물관과 박물관교육의 한국지부’인 셈이다. 글로벌한 이슈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와 한국사회에서의 사회문화적 과제는 멀리한 채 선진사례의 벤치마킹이라는 미명아래 사례를 적용하는 방식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3. 이들 카르텔이 취약한 부분은 대체로 공론장이다. 공론장은 출신지역끼리 모여서 논의하는 방식을 멀리한다. 오히려 공론장은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의 자리가 반가워한다. 그 이유는 같거나 비슷한 아젠더를 공유하는 여러 영역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다. 공론장(Öffentlichkeit)은 J. Habermas에 따르면 언어적으로 구성되는 공동체이다. 시대가 놓여진 상황에 대한 다양한 해석방식의 아젠더들을 발굴해내고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여러 관점에서의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물관의 전시와 교육 행위만큼 공론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
4. 박물관은 역사적으로 언제든 재현적 보여주기를 통해 교육의 장소를 겸하고 있다는 사실은 박물관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려졌다 (양지연·이병준, 2006; 김인희,

2007; 이병준, 2007). 전시가 하나의 새로운 교수법 또는 교육방법이었다는 사실은 박물관의 역사연구자료 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근대성의 특성인 기능적 분화에 의해서 박물관의 영역은 - 제도교육의 강조로 인해 - 교육의 영역이 아닌 문화와 예술, 그리고 역사의 영역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그러나 박물관이 Kerschensteiner가 말했듯이 ‘사물교육의 메카’ 임은 부정할 수 없다. 사물이 교육의 전면에 서는 경우는 박물관이 가장 선도적이다. 때문에 교육의 새로운 방법으로서 박물관을 바라본다면 박물관에서의 전시를 통해서 확산하고 교육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선정은 박물관이라는 해석공동체(community of interpretation)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해석공동체가 내부지향적이어서 사회와 소통을 통한 과정을 잘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5. 박물관에 왜 젊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하지 않는가의 문제는 학교시절에 경험한 박물관체험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불만족이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교사는 해설사들에게 학생들을 떠맡긴 채 학생들은 학교와는 다른없는 워크시트지라고 불리우는 학습지를 들고 박물관을 다녔던 경험, 그리고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설이 이루어져 산만했던 경험 들 모두. 이는 흡사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PISA에서 한국 학생들은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성인을 대상으로 했던 PIAAC(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는 그리 높은 점수를 보이진 못한 현실을 생각해보게 한다. 박물관에서의 경험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으면 청년과 성인이 되어서도 박물관에 발걸음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존재한다).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시와 해설,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박응희·이병준·박지연 (2008). 미술관 학습자연구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논의 - P. Boudieu
를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22(3), 157-174.
- 박응희·이병준·박지연·최유주 (2009). 박물관 교육방법으로서의 ‘해설’에 대한 교육학적
논의. 교육사상연구 23(1), pp.1-15.
- 박지연·이수민·이병준 (2011). 활동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박물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학습. 문화예술교육연구 6(4), pp.71-85.
- 이병준 (2007). 문화교육으로서의 박물관교육 - 이론과 실천모형. 박물관심포지엄 “박물관
교육의 운영과 현실”, 국립중앙박물관, pp.51-69
- 이병준 외 (2010). 문화역량과 문화예술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이병준 (2011). 교육적 범주로서의 전시행위에 관한 이론적 탐구. 문화예술교육연구,
6(1), pp.1-14.
- 이병준 (2011). 교육적 범주로서의 수정행위에 대한 탐구. 문화예술교육연구 6(4),
pp.25-37.
- 이병준·양지연 (2006). 박물관교육의 철학과 실천모형에 대한 역사적 연구: 미국과 독일
을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Vol.20, pp.135-170.
- 이병준·박지연 (2009). 박물관교육 연구에서 바라본 문화적 역량. 문화예술교육연구 4(1),
pp.105-117.
- Assmann, A. (2011). 기억의 공간 -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서울: 그린비.
- Fischer-Richte, E. (2017). 수행성의 미학. 현대예술의 혁명적 전환과 새로운 퍼포먼스
미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Habermas, J. (2024). 공론장의 구조변동 :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서울:
나남.
- Reckwitz, A. (2023). 과잉히스토리 사회 단독성들의 사회. 서울: 새물결.

제 2 발 표

경북대학교 미술관 세대통합과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운영 사례

이 남 미
(경북대학교미술관 학예연구사)

2024.7.16. - 10.31.

경북대학교 미술관 세대통합 /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운영사례

학예연구사 이남미

협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경북대학교 미술관

경북대학교 농촌문화센터

경북대학교

지역사회공헌팀

행복나눔집

소개 목차

01

프로그램 목표

02

주요 프로그램

03

세대통합 프로그램

04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05

결과

프로그램 목표

지속가능한 삶,
지속가능한 미술관

+

다양한 공동체가 모이는 허브,
포용적 대학 미술관



찾아오는 + 찾아가는 미술관
미술관의 경험 범위 확대

문화취약계층의 문화활동 반경 확장
미술관 = 대인관계 향상,
정서적 지지자 확보의 장으로 확대

학내 외 다양한 자원,
기관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
경북대 농대 부속 수목원(학술림)
쪽방 상담소(행복나눔의 집),
경북대지역사회공헌센터, 조경학과

주요 프로그램 요약

#세대통합 프로그램

꼬마 선장의 항해술

주니어+대학생+시니어 = 세대교류
오디오 가이드 제작 = 전시 참여 경험 제공
경북대지역사회공헌센터와 연계

일시

7.26.(금) ~ 8.17.(토)
매주 금요일, 토요일 총 8회

장소

경북대미술관 교육실

대상

주니어, 시니어, 대학생(총30명)

주요 프로그램 요약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숲:터

‘찾아오는+찾아가는’ 미술관
경북대학술림, 지역복지기관연계
사회복지사와 협력으로 전문성 확보

일시

9.3. ~ 10.15. (매주 화요일 6주)

장소

경북대미술관 교육실, 행복나눔의 집
경북대 대구 학술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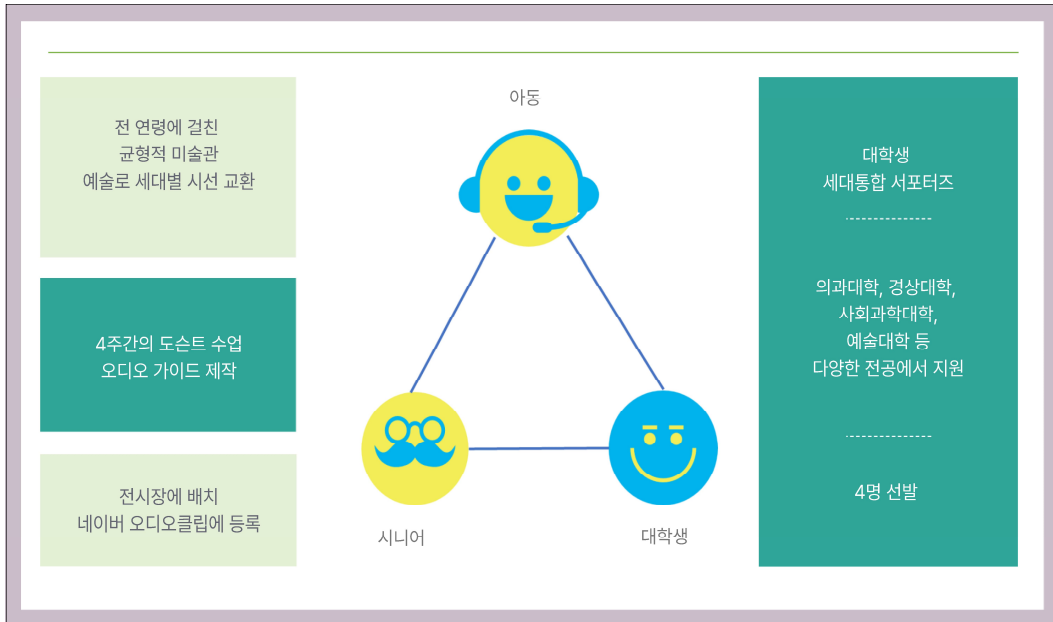
대상

행복나눔의 집 이용자

#세대통합 프로그램

꼬마선장의 항해술





1주차

항해준비! 항해친구와 선실에서의 첫 대화

항해친구 만들기: 짝공과의 소통



미술관 탐색



짝공 도슨트 정하기



대화와 게임



작품 선정

2주차

바다의 비밀: 항해지도 그리기

대화를 통한 작품 이야기 스크립트 작성



대본 작성



대본 수정



리허설

3주차

바다를 건너는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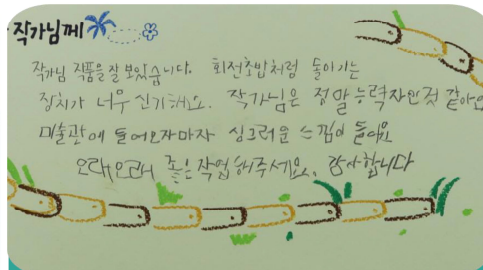
오디오 가이드 제작 및 완성



오디오 가이드 녹음



전시 초대장 만들기



작가에게 편지쓰기

4주차

꼬마 선장의 항해날

우리의 목소리로 미술관 항해



오디오 가이드 확인



생각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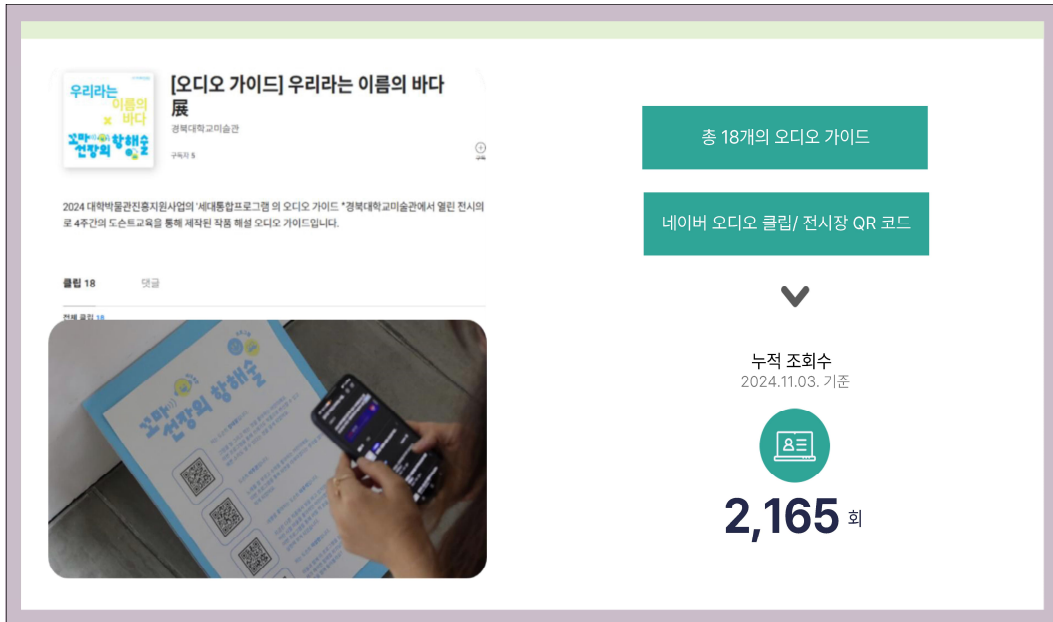
수료식

마무리

오디오 가이드 제작기 영상

경북대유투브





찾아오는 + 찾아가는 미술관

숲:터



행복 나눔의 집

참여자 모집
사회복지사 연계



경북대미술관

프로그램 운영
미술관 투어
일회용 필름카메라 수업



경북대 부속 학술림

숲 체험프로그램
장소제공 및 협조

1주차

전시감상을 통한 나를 위한 회복의 시작

2024.09.03. 화요일



장소: 찾아오는 미술관 + 경북대미술관

2주차

1인 가구를 위한 반려식물 만들기

2024.09.10. 화요일



장소: 찾아가는 미술관 + 행복나눔의 집

3주차

문화반경 확대하기 숲 체험프로그램

2024.09.24. 화요일



장소: 찾아가는 미술관 + 경북대 대구학술림

3주차

문화반경 확대하기 숲 체험프로그램

2024.09.24. 화요일



장소: 찾아가는 미술관 + 경북대 대구학술림

4주차

세상을 다르게 보기: 필름카메라 작동의 이해 및 체험

2024.10.01. 화요일



장소: 찾아가는 미술관 + 경북대 대구학술림

5주차

필름카메라를 이용한 숲 촬영

2024.10.08. 화요일



장소: 찾아가는 미술관 + 경북대 대구학술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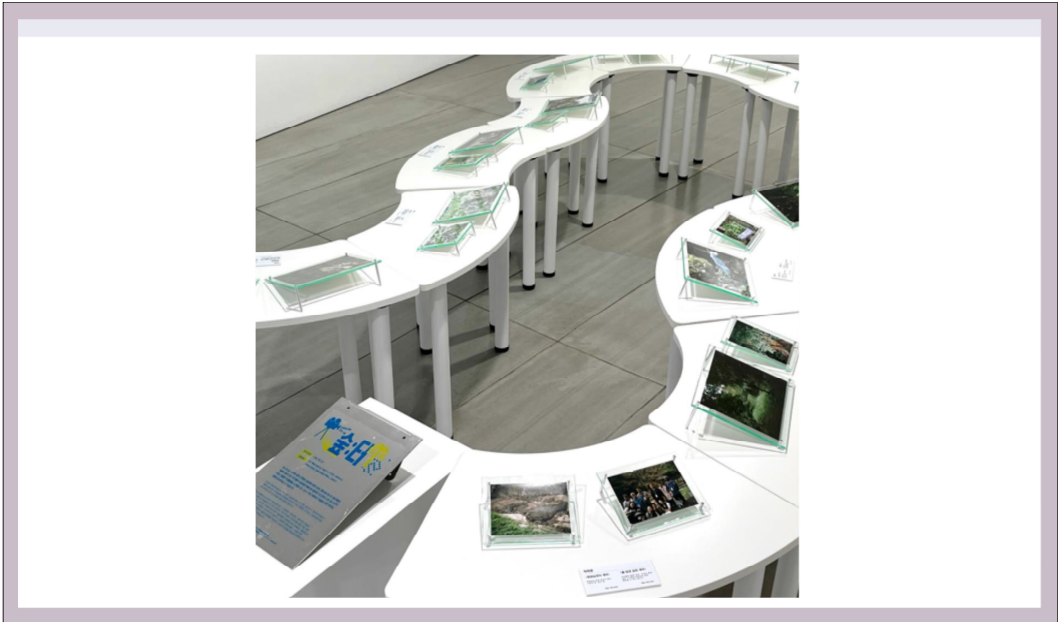
6주차

나를 드러내기: 사진 선별교육 및 작품 설치

2024.10.15. 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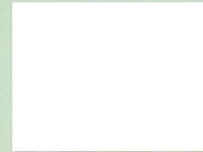
장소: 찾아가는 미술관 + 경북대미술관



<열망> 2024_Digital print_11x8.5inch

1. 작품 제목과 선정이유

작품1(큰사진)



제목: 열망

이유: 이제 쓸모없이
구석에 있지만 젊은
눈 열심히 양을 하고
2세대가 움직일 수
있을까?



<야유회> 2024_Digital print_5x7inch

1. 작품 제목과 선정이유

작품2(작은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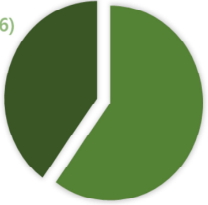
제목: 무엇이

이유: 무엇을, 한쪽의 삶
모습

프로그램 사전 설문

경북대미술관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열려되는 바가 있습니까?

아니요(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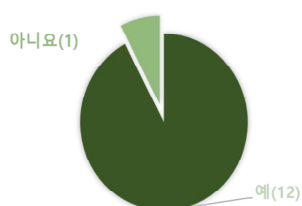


예(6)

- 미술관이 뭐하는 곳인지 잘 이해가 안됨
- 두려움이 크다
- 무엇을 할지 잘 모르겠다
- 내가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있을지 궁금함
- 전시회를 할 수 있을까?
-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프로그램 사후 설문

1. 이후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다른 체험학습이나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2. 어떤 면이 가장 유용하거나 가치있었나요?

- 자기 개발
 - 숲에 가서 사진 촬영한 것
 - 사진을 보는 안목이 높아짐
 - 자유로움 속에서 숲 체험
 - 미술관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가치있음
-
- 나도 이제 사진작가 못지않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자신감
 - 자기 역량에 맞는 자율적 교육과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줬다
 - 다른 생각,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
 -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미술관이 편해졌다.

결과

유의할 점 & 고려할 점



대상자의 특수성

관계의 장으로서의 미술관

과정으로서의 학습(지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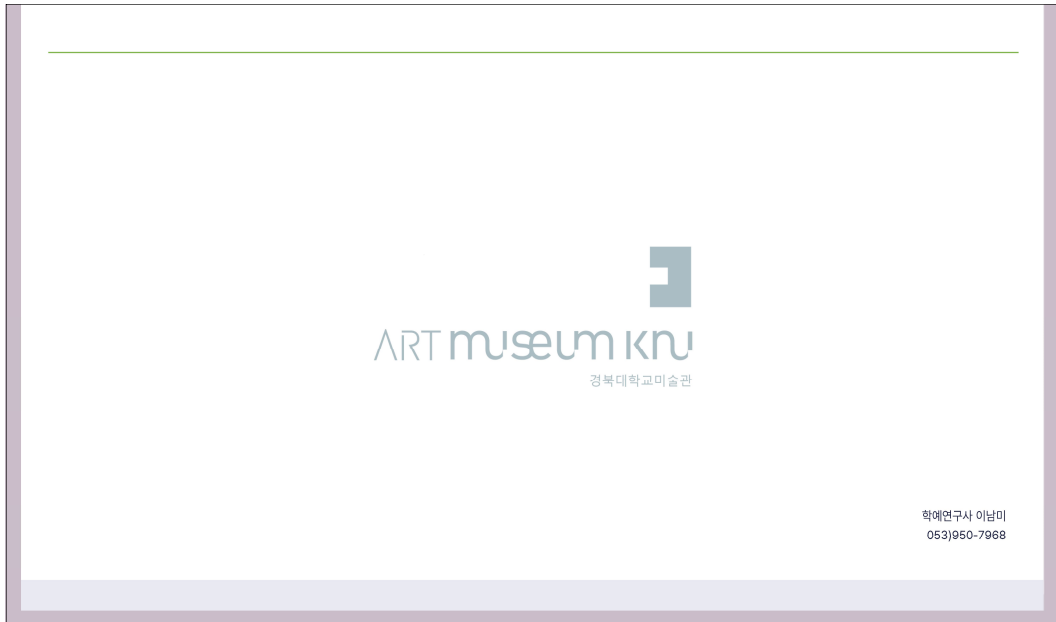
학습자의 변화



낮아진 경계심

미술관을 대하는 태도

학생을 비롯한 스텝과의 관계



제 3 발 표

경계를 넘어 세대와 세계를 잇는 문화교육공동체_
ACC 국제교육협력의 실천과 확정

조 성 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과 학예연구사)



경계를 넘어 세계와 세대를 잇는 문화교육공동체

- ACC 국제교육협력 사업의 실천과 확장성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성희학예연구사



목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소개
- ACC 국제교육협력
- ACC 글로벌 전문인력워크숍 및 네트워킹 사례
- 세대공존과 공동체로 이어지는 ACC 교육협력
- 결론 및 비전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소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2015년 11월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아시아 각국과 함께 동반성장하고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입니다. ACC는 아시아 과거·현재의 문화예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신념이 만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국제적인 예술기관이자 문화 교류기관으로 5·18 민주화운동(May 18 Democratic Movement)의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참여자들이 연구(Research) - 창작(Creation) - 제작(Production)의 단계를 수행함에 있어 경계를 가로지르며 자유롭게 화합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통합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ACC 설립목적 및 비전

설립목적

아시아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소성에 관한 특별법 제 27조

미션

아시아 동시대 문화예술의 교류와 창조의 플랫폼

비전

아시아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글로벌 문화예술기관

비전 슬로건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窓
Window of Asian Culture towards the World

핵심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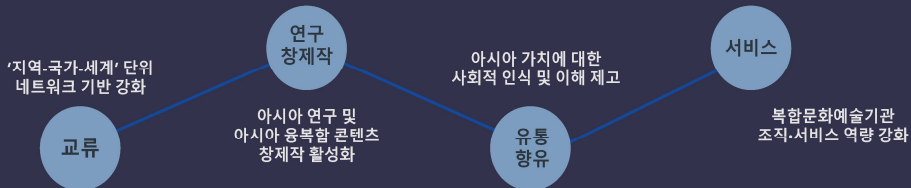
✓ 문화 다양성 ✓ 창의성 ✓ 역동성

5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I C I C
국제교육협력재단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Foundation

ACC 전략 목표



ACC 5대 핵심 운영 방향

교류	디지털 문화자원	프로젝트 랩(Lab)	고객중심	거버넌스(민관 협력체계)
아시아 문화 교류·협력 활성화를 선도	아시아 문화유산의 디지털 전환과 장의산업 보급을 실천	아시아성을 포함하는 융복합 창작작 산실로서 프로젝트랩 기능을 강화	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서비스를 반영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추진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

6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I C I C
국제교육협력재단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Foundation

ACC 방문객 현황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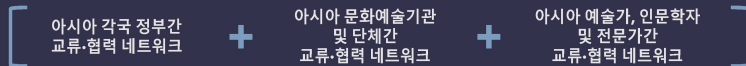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I C 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1) ACC 핵심업무_국외교류

아시아 국가 간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소통의 장

아시아 각국 정부,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를 공유하여 아시아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문화 교류·협력 플랫폼의 역할. 아시아문화 가치와 전통을 재발견하고 확산하는 교류협력을 통해 아시아 지역 문화발전 모델을 제시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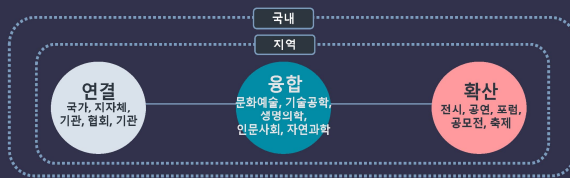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I C 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2) ACC 핵심업무_국내교류

민주, 인권, 평화 가치 확산

5·18 민주화 운동(May 18 Democratic Uprising)의 정신을 담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핵심가치인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 교류(협력, 연계, 공동, 지원) 사업을 추진



9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ICA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National Asian Cultural Center

3/4) ACC 핵심업무_연구조사&아시아문화자원 활용

아시아문화 연구 조사를 통한 창·제작 원천 소스 발굴

아시아문화 주요 논점을 분석하고, 연구·조사를 통해 선제적 문화자원 및 콘텐츠 창·제작(원천 자료) 활용기반 확보. 연구 성과를 대·내외 확산하기 위한 학술교류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과 국제 학술행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연구 데이터 수집 및 네트워크를 강화

아시아문화자원 수집·보존과 서비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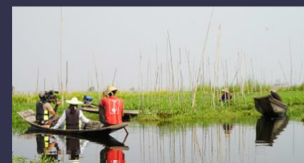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 존중과 가치 발굴·보존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수집·구축된 문화 자원은 아시아문화 아카이브 누리집과 문화 정보원 아시아문화 박물관에서 전시·체험·교육·열람 등의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져 이용자에게 다채로운 서비스로 제공



방문 연구 프로그램(ACC_R Fellow)



아시아문화연구 국제학술대회



아시아문화 콘텐츠 개발(다큐프로그램 제작)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ICA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National Asian Cultural Center

5) ACC 핵심업무_창·제작

세계적 수준의 융복합 콘텐츠 창·제작 산실

- 예술과 문화기술(CT) 기반의 융복합 콘텐츠 및 디지털 전시기획·운영
- 융복합 콘텐츠 랩(Lab)을 통한 예술&기술의 연구·개발 및 쇼케이스
- 창조적 지식과 기술, 경험의 결과를 실현, 창·제작 레지던시 운영
- Art & Tech 기반의 창·제작 기반시설 관리·운영 및 대내외 기술 협력·지원

창제작 스튜디오

- ACT 스튜디오는 창제작센터의 콘텐츠의 연구개발을 위한 Lab 공간(연구공간)과 창제작을 위한 3개의 스튜디오로 구성되어 있다. Lab에서 기획된 아이디어를 바로 제작해 볼 수 있는 국내 최대의 공간과 하드웨어 인프라를 제공한다.

- ACT 스튜디오 공간은 제작 장비를 포함한 제작 공간에 연구 공간을 포함하고 있어 아이디어를 바로 제작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드웨어 제작 장비는 고정형이 아닌 기획과 창작자들의 아이디어에 따라 능동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모듈형, 이동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계조형 스튜디오



복합 스튜디오



디지털 AV 스튜디오



11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I C I C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6) ACC 핵심업무_전시

아시아의 동시대를 바라보는 창·제작 전시

민주주의와 인권의 요람인 광주의 지역적 정체성을 근간으로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시대정신' 반영. 또한 창의성, 혁신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융합된 예술적 표현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전시를 선보임으로써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관람객들과 공유. 지역·아시아-세계를 잇는 국제 전시의 주요 플랫폼으로 매해 국제 연계의 범위를 확장.



12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I C I C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7) ACC 핵심업무_공연

아시아의 공연예술을 선도하는 창·제작 플랫폼

아시아의 공연예술을 선도하는 창·제작 플랫폼이자 교류의 허브가 되기 위해 아시아의 동시대 담론을 소재로 한 실험적 공연을 제작, 타 극장과 차별화된 공간을 통해 형식의 실험성을 확보하고, 그 안에 전 세계 및 전 세대의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아시아의 이야기를 담아 세계 공연무대에서 주목받는 차별화된 공연콘텐츠를 제작



ACC 레퍼토리 공연제작



어린이·청소년 공연제작

극장 1



극장 2



국제공동 창·제작



지역협력 프로그램 운영

극장 3



어린이 극장



13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I C C
국립아시아연극원
National Asian Theatre Center

8) ACC 핵심업무_교육

ACC 문화교육

아시아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해 '변화'를 주도하는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적 전문인력 육성, '가치'를 나누는 교육을 실천, 아시아문화예술 기반의 융·복합 교육콘텐츠 개발로 청소년·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체험의 장을 제공.
문화적 다양성의 보고인 아시아 문화자원과 동시대 예술을 선도하기 위한 문화기술 기반의 창제작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지원



ACC 배움인

- ACC 아시아문화예술교육
- ACC 인문테마강좌
- ACC 지역연계교육

문화예술, 인문학, 과학분야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ACC 전문인

- 직군탐색과정
- 콘텐츠발굴·실행과정
- 예술인력역량강화과정

ACC 문화예술 현장,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예비인재를 분야별 전문가로 양성하는 교육과정입니다.



ACC TEEN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전담에 특화된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계 진입 군에 대한 청소년들이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ACC 글로벌

- 아시아,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



ACC 올·라인

-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14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I C C
국립아시아연극원
National Asian Theatre Center

9) ACC 핵심업무_어린이

아시아문화 기반의 창의 예술 어린이 문화 놀이터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새롭고 독창적인 콘텐츠는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 할 뿐만 아니라 체험·창작 놀이를 통해 감성과 창의성을 키움. 아시아로 떠나는 문화 여행을 통해 어린이들의 꿈이 성장



어린이 체험관

·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신나는 놀이여행



유아 놀이터

· 시아와 친구들의
무지개나라 탐험



어린이 교육

· 호기심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즐거운 창작 여행



어린이 공연

· 예술적 감성과 꿈을 키우는
흥미로운 상상 여행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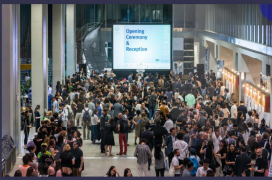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I C 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10) ACC 핵심업무_축제·행사

야외 공간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시민문화생활

아시아문화광장, 하늘마당, 열린마당, 나눔마당 등 전당 내 곳곳에서 지역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 진행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분야별 축제와 다채로운 행사는 ACC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삶에 활력소



16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I C 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2. ACC 국제교육협력



왜 국제교육협력이 중요할까?

홍콩, M+ 연계, 대학생 대상 워크숍 운영모습(2024년, 홍콩 M+)



글로벌 시대의 문화적 이해와 협력 필수
아시아 문화 다양성과 동시대성 간의 균형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필요

ACC 국제교육협력



목 적

- (아시아 문화예술교육 허브역할)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협력 및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 (국내·외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 해외 우수 교육 프로그램 공유 및 상호 교류를 통해 국제적 전문성 습득 및 역량증진 기회 제공
- (호혜적인 동반성장) 해외 문화예술기관과 인적 교류 및 공동 교육개발, 프로젝트 운영 등을 통해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호혜적인 동반성장

19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I C I 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National Museum of Asian Culture

3. ACC 글로벌 전문인력 워크숍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I C I 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National Museum of Asian Culture

(2023) ACC 글로벌 전문인력 워크숍 I

영국, 빅토리아앤드알버트뮤지엄(V&A) 연계, 국내 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교육 관련 종사자 30명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V&A의 교육개발 및 대상별 교육운영, 평가 등에 대해 사례 심도있게 공유



21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ICAC
국제교육협력재단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Foundation

(2023) ACC 글로벌 전문인력 워크숍 II

대만, 국립가오슝아트센터(Weiwuying), 국내 공연예술 관련 종사자 15명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국립가오슝아트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강연 및 페스티벌, 공연 등을 참관하며 실무 교육



22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ICAC
국제교육협력재단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Foundation

(2024) ACC 글로벌 전문인력 워크숍 Ⅲ

홍콩, 엠플러스(M+ 뮤지엄) 연계, 국내 시각예술 전공 대학생 15명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 워크숍 진행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 3명과 함께 4일동안 아이디어 도출, 표현기법, 창작구현 등 체험



23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I C I C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2024) ACC 글로벌 전문인력 워크숍 IV

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창작자 및 기획자 25명 대상, 한국의 융복합 미디어 아트 관련 사례 및
동시대 예술 현안 등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및 한국의 문화예술기관 답사



24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I C I C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4. 아시아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아시아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킹 워크숍 I

• 제1회 아시아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킹 워크숍 및 컨퍼런스 개최(2022년부터 시작)

- 1) 네트워킹 워크숍: 아시아 지역 문화예술기관 초청,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소개, 사례 발표 및 네트워크 구축
 - 총 9개국, 15개기관, 20명 참여
- 2) 국제 컨퍼런스: 문화예술교육관련 분야 전문인 및 일반인 대상 국제 컨퍼런스
 - 현장 100명, 온라인 생중계 350명 / 총 450명 참여



2022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국제교육협력 사업이 신설된 후 처음 시도되었던 프로그램으로, 미술관 외에도 공연, 문화예술기관들이 참석하여 보다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 할 수 있었고, 다른 참여 기관들 또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공동적인 주제를 가지고 서로 사례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 발판 마련. 문화전당은 이를 계기로 2025년 현재까지도 각 기관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교육을 공동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음

아시아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킹 워크숍 II

• 제2회 아시아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킹 워크숍

- 1) 싱가포르, 싱가포르국립미술관 주최, 제2회 아시아문화예술교육 네트워킹 워크숍 진행 및 아트워크 참여
 - 〈각 기관 사례발표를 통한 해외 문화예술교육 동향파악 및 국제교류〉유지엄 교육의 미래와 '창의성 증진을 위한 예술의 역할'을 주제로 각 기관 사례 발표 및 그룹 토론을 통해 국제적 최신동향 파악 및 정보 공유
 - 6개국, 8개 기관, 총 25명 참여



27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I C I 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아시아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킹 워크숍 III

• 제3회 아시아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킹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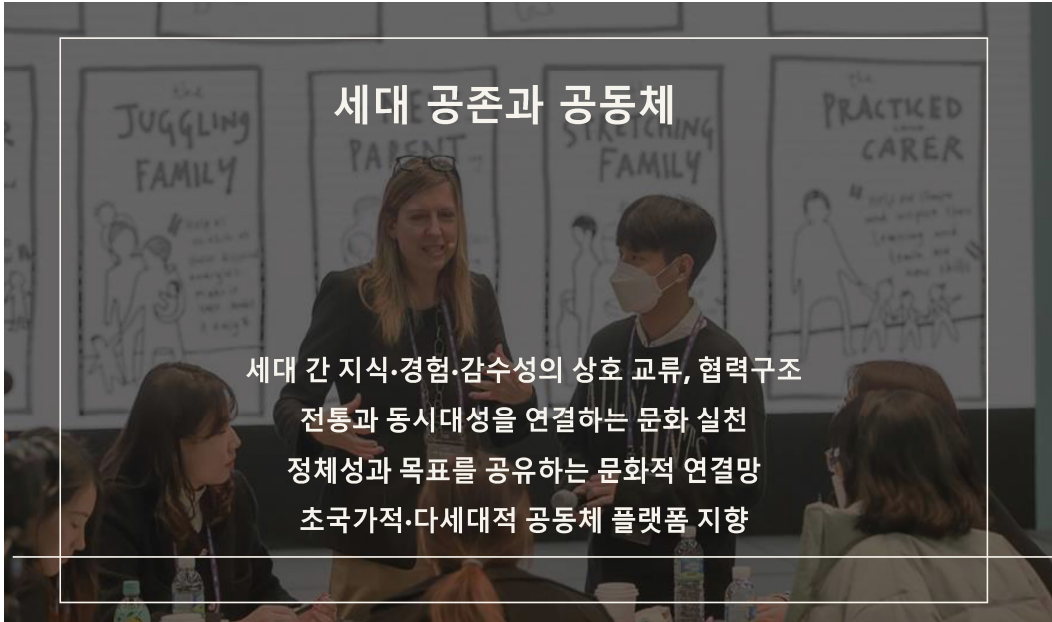
- 1) 일본, 날리지 캐피탈 주최, 제3회 아시아문화예술교육 네트워킹 워크숍 진행
 - '문화의 산업화, 산업의 문화화'를 주제로 오사카의 문화예술연계 산업 사례 및 해외 문화예술기관 사례 공유, 해외 기관들의 주제관련 그룹 토론 등을 통한 국제적 최신동향 파악 및 정보 공유, 교육 담당자와의 네트워킹 구축 · 교류
 - 9개국, 11개 기관, 총 15명 참여



28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I C I C
국립아시아문화전당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ACC 국제교육협력을 통해

아시아-세계를 잇는 문화교육의 허브역할,
세대를 잇고, 공동체를 확장하는 국제교육협력을
실천, 문화의 교차점으로서의 미래 지향,
문화공동체는 '세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과

30



THANK YOU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성희학예연구사

sungheecho1002@koea.kr

[Linkedin.com/in/sunghee-cho-44894321b](https://www.linkedin.com/in/sunghee-cho-44894321b)

토 론

토론 1 : 권 정 숙 (청운대학교 교수)

토론 2 : 조 혜 진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 학예연구사)

토론 3 : 김 자 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미래전략사업실장)

세대통합/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운영사례 토론문

경북대학교 미술관의 세대통합 교육과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의 사례는 박물관이 사회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인상깊은 사례이다.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특정 대상을 넘어서 다양한 세대와 사회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 모두를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교육은 관람자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삶의 정서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을 길러주는 문화적 경험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발표를 통해 박물관의 존재 의미와 교육의 철학을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신 점에서 감사드린다.

발표 내용에서 궁금했던 몇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이남미 학예연구사가 발표한 경북대학교 미술관 프로그램의 가치를 심도 깊게 나누고자 한다.

먼저,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인 ‘꼬마 선장의 항해술’의 구체적인 설계와 교수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이 프로그램은 주니어, 대학생, 시니어가 함께 미술관을 탐색하고 오디오 가이드를 제작하는 연속 강좌로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이다. 여러 세대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 참여자 간 짝궁 구성 방식, 대화 유도법, 대본 작성 과정, 참여자 간 생각 나누기 활동의 운영 방식이 어떤 교육적 원칙과 전략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인 ‘쑤:터’는 참여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자기표현을 경험하도록 유도한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발표에서는 참가자들의 만족감, 자존감 향상, 미술관에 대한 거리감 해소 등의 긍정적 반응이 소개되었다. 그런데 ‘회복’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정서적·심리적·사회적 차원의 복합적이고 미묘한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참가자들의 변화의 지점과 과정을 어떻게 관찰하고 해석하였는지 궁금하다. 발표에 나와 있는 사전·사후 설문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 회복의 개념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명확하게 제시된다면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와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신뢰성과 설득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북대학교 미술관이 운영한 세대통합 및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은 박물관의 기능적 확장을 넘어서, ‘박물관·미술관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실천적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변화와 지역 공동체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성·포용성·지속가능성·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실현하는 박물관의 변화된 사회적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구 지역의 대학 미술관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구축된 교육 콘텐츠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그 안에서 문화적 공감과 회복의 기반을 만들어가는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나아가 이러한 연계 구조가 어떻게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을 지에 대한 향후 계획도 함께 공유해주시면 좋겠다. 이를 통해 박물관이 문화적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문화적 경험과 사회적 연대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기관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토론문: 세대공존의 문화적 전환과 박물관 교육의 과제 - 부르디외의 문화이론을 중심으로

문화기관으로서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라, 집단 기억과 상징적 질서를 구성하는 중심축이다. 오늘날 ESG 담론, 지속가능성, 인류세라는 시대정신 속에서 박물관이 '세대공존'이라는 키워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한다면, 그 공공성은 의미와 가치를 가지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박물관이 문화적 지속가능성, 세대공존,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적 사명과 임무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며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인 세대 갈등 해소 및 지속가능성 가치 실현에 박물관 교육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역설한다.

이러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 교육적 기능에 대한 논의는 문화가 단순한 미학적 영역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부르디외를 불러온다. 즉 박물관이라는 문화기관이 사회 구조 내에서 어떻게 기능하며, 그 안에서의 교육 활동이 어떤 사회적 함의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데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박물관은 사회적으로 '정통' 문화로 인정되는 형태의 문화 자본이 축적되고 유통되는 핵심적인 '장' 중 하나이며, 특정 집단의 아비투스(아비투스)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상징적 폭력'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박물관이 전시하고 교육하는 내용은 대개 특정 시대와 계층의 미학적, 역사적, 과학적 기준에 따라 선별된 객관화된 문화 자본의 총체라 할 수 있고, 박물관을 방문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며, 전시된 예술품이나 유물에 대해 논할 수 있는 능력은 체화된 문화 자본의 표현이며, 이는 개인의 '아비투스'와 깊이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형식, 접근 방식이 특정 계층이나 배경의 문화 자본에 더 익숙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구성될 경우, 이는 박물관을 "도시(지역) 속에서 섬(island)"과 같은 존재로 만들고, 문화 자본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심리적, 사회적 장벽으로 작용하여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 박물관은 전시, 교육, 해설, 기획 등 다양한 행위를 통해 특정한 상징자본을 축적하는 장이다. 이 안에서 박물관 전문가들의 아비투스는 종종 외부와 단절된 자기 재생산적 특성을 보인다. '박물관 전문가들의 카르텔'은 박물관을 폐쇄적 장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는 부르디외가 말한 '장 내부 권력재생산'의 전형이다.

세대갈등은 단순히 감정적 대립이 아닌, 세대별 아비투스의 충돌이다. 특정 세대가

주도하는 전시기획이나 교육콘텐츠는 타 세대의 이해를 배제하거나 ‘이해 불가능’으로 만든다. 박물관 교육이 진정으로 사회 통합과 세대 공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비투스(문화 자본)와 문화 자본을 가지고도 박물관 콘텐츠에 접근하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혁신해야 한다. 단순히 전시 해설을 제공하거나 유물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방문객 각자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박물관의 오브제 및 내러티브와 연결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적인 교육 방식, 즉 “오브제를 통한 개인과 세계 간의 연결과 상호작용의 촉진”이 필요하다. 이는 박물관 교육이 기존의 정통 문화 자본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문화 자본과 경험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공동으로 생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교수님은 박물관교육이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공간과 사물을 매개로 한 ‘전시 기반의 학습’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박물관이 “문화적 기억의 저장소” 역할을 넘어 “다양한 시민 취향의 설계”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물 기반 학습은 특정 세대의 물질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세대 간의 문화자본의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박물관의 전시는 ‘세대의 문화적 아비투스가 충돌하고 교환되는 장’이 되어야 하며, 이는 문화자본의 민주화를 위한 실천적 접근이 된다.

이 글에서 관심있게 본 것은 Reckwitz의 세 가지 전략(트렌드, 아방가르드, 콜라보레이션)을 박물관에 적용하는 논의이다. ‘트렌드 전략’은 대중의 현재 취향에 맞춰 고객 친화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대중적 취향을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새로운 취향 형성을 돕거나 비판적 시각을 기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아방가르드 전략’은 전문가의 비전으로 대중을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화 자본과 취향을 제시할 잠재력은 크지만, 기존의 아비투스(문화 자본)와 충돌하여 대중으로부터 외면받을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콜라보레이션 전략’으로, 이는 창작자와 고객이 함께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부르디외적 관점에서 이 전략은 박물관이 지닌 정통 문화 자본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자신의 문화 자본과 아비투스를 가지고 박물관의 의미 구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구별짓기’의 경계를 허물고 문화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시민을 단순한 수용자가 아닌 ‘공동 창작자’로 인정하는 것은 박물관 교육이 문화 재생산의 도구가 아닌, 문화 변동과 사회 통합의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지금의 박물관은 특정 전문가들에 의해 해석되는 ‘폐쇄된 해석공동체’이다. 하지만 시대는 다층적 아젠더를 필요로 하며, 박물관은 ‘다중 해석의 공동체’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물관의 조직문화 자체가 ‘세대감수성’을 내재한 다세대

협업구조로 바뀌어야 하며, 해석의 독점에서 해석의 분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박물관 교육이 중점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과제는 새로운 문화실천의 가능성을 연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세대 간 문화적 역동성과 해석의 민주화를 시도하는 실험장이 되어야 한다.

교수님의 박물관 교육의 역할과 방향성에 깊이 공감하면서 교수님의 아이디어를 듣고 싶은 마음에 몇 가지 질문으로 마무리하려 한다. 첫째는, 박물관이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모두의 공통적인 인식이지만 박물관이 지향하는 ‘통합된 사회’는 어떠한 모습이며, 누구의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하는가 이다. 문화다양성 존중과 사회통합이 가능할 수 있는지, 박물관 교육이 사회변화의 동력으로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지, 박물관 종사자들이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가 가능한 것인가 이다. 두 번째로는 박물관교육에서 어떻게 문화적 지속가능성과 세대공존의 가치실현이라는 거대 담론을 효과적으로 실현해 낼 것인가의 문제인데, 박물관의 제한된 예산, 인력, 시간 등의 현실적인 제약이나 미래 세대의 필요를 교육내용에 담아낼 수 있는 문화적 역량 강화의 방법론은 무엇인가 이다. 세 번째는 시민교육의 장으로서 박물관 공간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인 권위적인 전시 방식, 소극적인 참여 유도 방식, 동질적인 관람객 구성이라는 특징을 다양한 해석과 비판적 질문을 장려하고 관람객의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시와 해설,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혁신’의 가능성을 듣고 싶다.

〈경계를 넘어 세계와 세대를 잇는 문화교육공동체〉 토론문

조성희 연구사님께서 발제해주신 글로벌 전문인력 워크숍과 아시아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워크숍 사례를 통해 ACC 국제교육협력의 방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문화다양성과 동시대성의 균형을 유지하며, 초국가적·다세대적 공동체 플랫폼을 지향하는 협력사업의 방향이 인상 깊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학교 내 지식위주의 입시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의식에서 출발, 한국에서는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등을 통해 정책의 기틀이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적 권리로서 예술교육, 예술감수성 향상을 위한 보편적 교육, 그리고 예술 자체에 대한 교육을 넘어 예술을 매개로 다양한 삶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교육을 지향해 왔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한국과 국제사회 구조는 삶의 가치에 대한 질문과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삶의 주제, 전 지구적 도전과제와 연결되는가? 다양성과 포용성의 동시대적 관점에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참여자가 주체적으로 문화와 예술과 관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서구적 관점이 아닌, 아시아적 관점에서 지역성과 동시대성은 무엇인가?

한편, 유네스코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국제규범은 2006년 리스본 1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채택된 예술교육 ‘로드맵’, 2010년 서울 2차 대회의 결과물 ‘서울어젠다’, 그리고 지난 2024년 아부다비 3차 대회에서 채택된 ‘문화예술교육 프레임워크’에 이르기까지 진화 발전중입니다. ‘로드맵’이 개인적 성취와 교육에서의 예술교육 강화 같은 개인적이고 교육 내적인 관점의 목표를 제시하였고, ‘서울 어젠다’가 불평등, 평화, 문화다양성 등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이슈에 대한 예술교육의 기여 필요성을 언급했다면, ‘프레임워크’는 인류와 미래 비전을 반영한 전 지구적 사회·문화·교육적 대응의 맥락으로 문화예술교육의 범주를 확장하였습니다. 창의성, 비판적 사고, 문해력 및 사회적·정서적 역량 강화 등과 더불어 민주적이고 비판적인 견해의 함양, 편견의 지양, 문화다양성·인권·사회적 결속에 대한 인식, 세계시민의식과 환경의 가치를 함양하는데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표내용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통해, 세계와 세대를 잇는 문화교육

공동체의 의미를 보다 깊고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1. 아시아 문화예술 네트워킹 워크숍의 주제를 ‘문화예술교육’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요 문화기관과 교류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사례가 있다면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추진했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ACC의 다채로운 사업과 접근을 통해 ‘세대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화공동체’는 어떻게 구현되길 의도했고 기대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특징과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시는 발표자님께 감사드립니다.